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발락은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그곳에서 발람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22:41~23:1)

적용과 나눔 I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거나, 하나님 뜻을 알면서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있나요?

관찰과 묵상 II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에 발락이 질책하자 발람은 뭐라고 말했나요?(12절)

적용과 나눔 II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우, 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대가를 사랑해 거짓된 길을 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24:17).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마 6:24).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기쁨과 감격,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으로 잘 세워도록 기도합니다.
2.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문제로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길을 실현하기 어려운 교육 현실입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이 참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파송하기】

- 헌금 찬양 (3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Offering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욱자	강철규	금은정	김명운	이지연	김문정	김봉숙	김성제	김진용	장영희
	남문주	박경의	서정은	박성만	오순남	박춘식	임영희	방옥자	서금자	신동희
	신현희	양충섭	김만순	유기쁨	유혜순	이동재	이성희	임윤구	조원선	전명진
	김영경	정무자	정외숙	정주영	이정운	최영자	하외숙	한승국	최정숙	허원용
	안종길	익명 3								
감사헌금	강은숙	강철규	강태운	강호길	고재석	전희정	권병규	금은정	김금례	김동오
	설수정	김재욱	김정수	김종순	김주안	김창배	안명옥	김한수	김홍태	김태숙
	남상진	유혜순	마광희	문미자	문유익	박춘식	임영희	신연자	신재희	윤수례
	이동재	이미라	이병준	조남연	이정순	이하민	정연자	정유경	정주영	이정운
	최 혁	전주희	최명숙	최보연	한승국	한영숙	홍현기	김소원	황구연	익명 5
심방감사	이순옥	최석한	정미숙	박종철						
부활감사	김혜자			생일 정반산			일천번제		황병주	
주정헌금	강대봉	서계녀	김송자	김춘식	송수진	서금자	안유정	양주원	이덕호	이춘득
	황광주	장미								
선교헌금	강철규	김봉숙	김성제	김진용	장영희	김진형	박성만	오순남	방옥자	서금자
	서정은	신동희	신현희	안여송	구정림	양충섭	김만순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정외숙	정주영	이정운	천현진	허원용	안종길	익명			
나눔헌금	김봉숙	김성제	김진용	장영희	박성만	오순남	서금자	서정은	신동희	신현희
	안여송	구정림	양충섭	김만순	윤수례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정주영	이정운
	조경한	정세영	허원용	안종길	익명 2					
건축헌금	권도영	김봉숙	김성제	김은영	김진용	장영희	박경의	서정은	박성만	오순남
	방옥자	서금자	신동희	신현희	안여송	구정림	안정애	양충섭	김만순	윤수례
	임윤구	조원선	정무자	정외숙	정주영	이정운	천현진	허원용	안종길	

Community

구역 보고

지역	구역장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지역	구역장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 2 신재희	11 김봉숙					3 · 4 김한수	31 신동희	3	15,000	70	교회
	12 한영숙						32 정미숙	3			교회
	13 김영숙						33 신현희	4	25,000	133	교회
	14 정무자						34 원신희	3	15,000	80	교회
	15 구자임						35 전소영				
	19 전대근				행복장터		36 신윤미				
	21 금은정	4	24,000	121	교회		39 김창배	2		90	교회
	22 김태숙						41 정연자				
	23 이미라	3	15,000	50	교회		42 오순남	3	11,000	60	교회
	24 장라정	1	5,000	11	장라정		43 윤여주	2		60	교회
25 김은지	4	8,000	23	김은지	44 전희정						
28 강철규	2	20,000		교회	45 이순옥	2	15,000	40	교회		
29 신재희					46 이정희	5			교회		
					49 고재석						

구역교재 18

2025.05.15.

탐심을 버리고 말씀 따르기

민수기 22:41~23:12

찬 양 / 나의 생명 되신 주(찬 38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CCM)

향기로운 기도 /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초 점 / 성도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삶 나누기】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나누어 보세요.

(Q.T 나눔, 감사 나눔, 일상 나눔 등)

【본문 읽기】

성령 안에서 민수기 22:41~23: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람은 그들을 저주해 몰아내고자 점술가 발람을 불러옵니다. 민수기의 기록만으로는 발람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발람을 불의의 대가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록했고(벧후 2:15; 유 1:11), 발람이 모압 왕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계 2:14). 이렇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그분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다룹니다.